

교육행정학회 연구방법론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발제문

2021년 11월 26일 토요일

발제 1. 연구자의 세계관

혼합연구자와 연구자의 세계관

변수연(부산외국어대학교)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적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방법론 교과서들은 존재론적 입장과 인식론적 입장들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연구자는 세계라는 실재에 대한 관점과 앎의 과정에 대한 신념에 의해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연구자가 탐색하려는 세계가 연구자 밖에 실재하는가, 아니면 그런 객관적 실재 따위는 없고, 인간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틀을 이용해 구성하는 주관적 세계가 있을 뿐인가라는 두 입장, 즉 자연주의(실증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인식론은 앎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입장으로 자연주의적 연구자는 그 세계를 경험을 통해 탐색하며 지식을 축적해 간다고 믿고, 구성주의적 연구자는 지식이 그것을 연구하는 개인들에 맥락에 따라 중첩적이고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두 차원의 입장 차이는 사회과학 연구자 개인에게는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양적연구와 질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질적연구 사이에서의 실질적 선택으로 가시화되곤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나와 같은 연구자들은 질적연구방법론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구자로서 진실이나 세계에 대한 철학, 세계관, 혹은 패러다임을 잘 생각해 보고 자신이 어떤 그룹에 더 가까운지를 분명히 인식하라” (Birks & Mills, 2015)라는 조언을 보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이들이 말하는 ‘복수의 나’에 대한 실재감과 ‘연구자로서의 나’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과 사회, 개인으로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연구자로서의 나’로 잘 수렴될 수도 있지만 이미 ‘연구자로서의 나(들)’의 관점이 내가 목도하는 현상, 즉 연구문제에 따라 다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때도 빈번하다. 더욱이 어떤 한 현상에 대해 폭넓은 양적연구의 관점에서 조망한 후, 보다 세부적 현상을 연구대상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 모두를 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면, 나는 양자 간의 철학적 전제 중 이미 어느 한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양자 간의 선택을 일단 보류하고 내 안에서 두 가지 입장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일부 연구방법론 교과서들은 연구설계의 초기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이 세계와 자신(인간)의 관계, 앎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연구분석의 단계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나는 역지로라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당면한 연구문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일종의 안경처럼 쓰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교육행정학회 연구방법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중견연구자의 단계로 접어든 나는 비로소 ‘연구 패러다임 논쟁’을 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 논쟁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었고, 초기의 고전적 근거이론을 주창한 Glaser의 입장과 근거이론을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으로 정착시킨 Strauss 및 그의 제자들의 입장 차이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 논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나는 사실 이미 연구문제에 대한 유연한 패러다임 선택을 마음 속 깊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연구자들의 입장은 대립적으로 보이는 연구 패러다임의 혼합이나 병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변기용, 2020; Moses & Knutsen, 2011). 특히 혼합연구가 사회과학 전반에서 시도되면서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연구 패러다임 논쟁은 약간 식상한 논

쟁이 되어 버린 느낌도 들었다. Hall(2012)은 혼합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구 패러다임에서의 입장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이 없는 접근방식(a-paradigmatic approach)이다. 즉, 패러다임 이슈를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수의 패러다임을 이용하는 다중 패러다임 접근이다. 세 번째는 단일 패러다임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포용적인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연주의와 구성주의를 절충한 입장이라고 평가되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Moses & Knutsen(2011)은 사회과학이 “문제가 유도하는 과학(p. 484)”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수용을 통해 방법론(연구자의 현실 인식과 신념)이 아닌 연구문제(사회현상)의 특성에 따라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로 여기, 연구문제의 특성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순간에서부터 존재론과 인식론의 차이가 시작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연구자는 각자의 방식대로 실재에 접근하고, 나와 같은 혼합연구자는 그 실재를 좀 더 음미하면서 내가 가진 연장통¹⁾에서 가장 적합한 연장을 고르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난 1년 동안 교육행정학회 연구방법론위원회는 내게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함께 연구 패러다임 논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한 여러 대안적 시도를 이해하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좀 나은 연구자로서 한 계단을 오르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도전을 준 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끝으로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Moses & Knutsen(2011: 484)의 저서 끝의 조언을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전문가는 좁은 영역을 다룬다고 해서 (단순한) 기술자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 다만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시민들처럼 우리들(연구자) 각자는 우리의 한계점을 알아야 하며, 좀 더 큰 구도에서의 우리(서로)의 공헌에 만족해야 한다.

참고문헌

- 변기용(2020). 근거이론적 방법: 현장 기반 이론 생성을 위한 질적연구. 서울: 학지사.
- Birks, M., &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Sage.
- Hall, R.(2012). Mixed Methods: In search of paradigm. In T. Lê(Eds.), *Conducting research in a changing and challenging world* (pp. 71-78). Hauppauge, NY: Nova Science.
- Moses, J. W., & Knutsen, T. L. (2011). 정치학 연구방법론 (*Ways of knowing: Competing methodologies in social and political research*) (신옥희 · 이왕희 · 이용욱 · 조동준 공역). 서울: 을유문화사(원서 출판, 2007)

1)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가 말한 비유로 알려져 있다(Moses & Knutsen, 2011: 27).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도구로 간주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문 연구 수행을 위한 나의 세계관: 과학철학으로서의 존재론과 인식론 및 연구방법론

박선행(동국대)

○ 과학철학에 입각해서 교육행정학의 이론발달 과정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1998)를 취득한 이후, 교육행정학 이론 탐구와 과학철학 및 연구방법론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있음.

1. 나의 존재론: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

- 형이상학적 실재론(실재 세계는 명확한 성격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함)
- 의미론적 실재론(과학이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실체는 대부분 존재하며 우리 이론이 설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인식론적 실재론(관찰할 수 있는 것과 관찰할 수 없는 세계의 특징을 과학적 방법의 적절한 사용으로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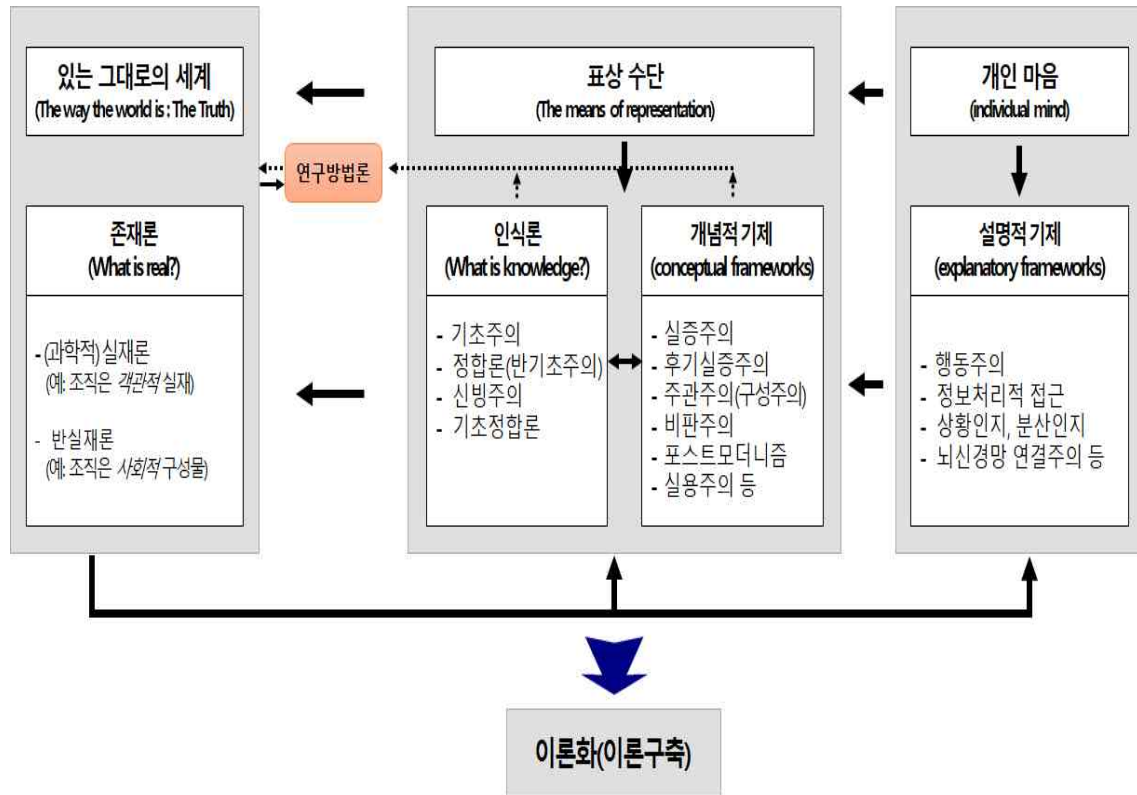
2. 나의 인식론: 자연주의적 인식론(Naturalized Epistemology)

- 철학과 과학의 이원론적 분리를 배척하고 과학과 철학의 상호연계적 이론적 · 경험적 연결 고리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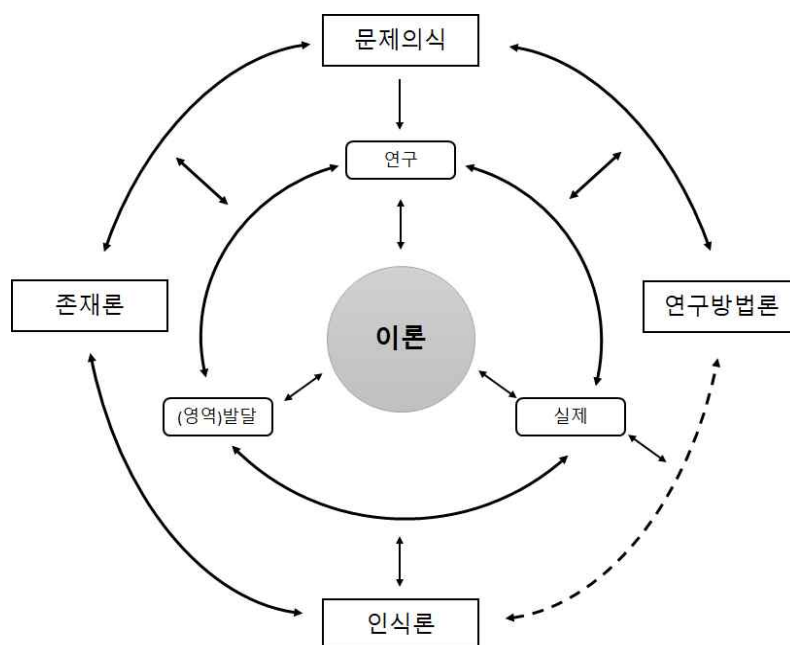
3. 나의 연구방법론: 혼합방법연구(Mixed Methods Research)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불가공약성을 배척하고 동시적 활용 탐구

4. 이론화 구축과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의 연계적 관계



5. 과학철학과 연구방법론 및 이론발달 과정



〈표 1〉 과학철학과 주요 접근 비교

	해석주의	합리론	경험주의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론
존재론	■ 상대주의 - 지식과 의미는 해석의 행위임. - 삶과 세계처럼 연구자와 실재는 분리 불가함.	■ 연구자의 마음이 실재임. - 마음은 신에서 유래함.	■ 연구자와 실재는 분리됨.	■ 실재론 - 연구자와 실재는 분리됨. -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고 실재함.	■ 비판적 실재론 - 연구자와 실재는 하나이고 동일체임.	■ 상대주의 - 반실재론, 회의론, 집합주의, 평등주의, 실용주의
인식론	■ 지식은 상대적 -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음. - 모든 진리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문화 제한적임.	■ 이성인 지식의 주요 원천임 - 지식은 생득적임. - 마음 경험, 직관, 선험적 지식	■ 객관적 실재는 내성적 자각, 감각, 과거 경험에서 발생함. - 사후적 지식	■ 객관적 실재는 인간의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함. - 가치중립성 - 연역주의	■ 자격을 갖춘 객관성. - 실재는 존재함. 그러나 완전히 이해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함. - 경험적 반증	■ 지식은 이념적 편견 제거에 의존함. - 보편적 진리의 달성은 불가능함. - 진리는 문화적·사회적으로 구성됨.
지식관과 해당 사례	■ 지식은 마음을 통한 해석에서 도출됨. - 텍스트의 해석(예: 정부 문서, 법률)을 통해 쓰여진 단어의 의미 파악 - 공무원 녹취록 내용분석 - 공공조직의 내부 작업을 조사하기 위해 민족지 사용	■ 지식은 이성을 통해 획득됨. - 공공행정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담론 - 공공행정의 범위나 의미에 대한 개념적 분석 -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메타윤리 분석	■ 지식은 감각을 통해 획득됨. - 정부 내 여성 집중에 대한 기술적 연구 - 최전선 관료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사용 - 공무원 또는 조직의 모범사례	■ 지식은 경험적 검정과 가설 검증을 통해 획득됨. - 일선 관료행동에 대한 경영 실체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실험연구 - 공공경영과 민간경영 정보시스템 간의 잠재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 성별이 공무원 급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테스트	■ 지식은 추측을 통해 획득되고 반증의 대상이 됨. - 공공가치가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Q 방법의 사용 - 계약사용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혼합방법 사용 - 공공경영 개혁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혼합방법 사용	■ 지식은 사회적 구성을 통해 획득됨. - 주류 개념의 비판적 분석과 해체(예: 민주적 책무성) - 정치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거버넌스에 관한 과학적 접근의 정치적 함의점 - 공공행정의 성역할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
방법론	■ 해석학, 근거이론, 현상학, 개인중심적	■ 귀납주의, 사변, 상식적 추론, 수학적 추론, 비판적 추론	■ 관찰, 가설검정, 삼각측정, 혼합방법	■ 기관중심적, 연역적, 논리적으로 유도된 가설, 가설의 경험적 검정, 검증	■ 삼각측정, 혼합방법, 수정된 실험	■ 맑스주의, 비판이론, 급진적 시각, 탈구성주의, 기호학, 페미니스트 비판
기록 기법	■ 질적	■ 질적	■ 질적/양적	■ 양적	■ 질적/양적	■ 질적
방법	■ 민속지학, 실천연구, 기술적 사례연구, 내용·내러티브 분석	■ 개념적 분석, 규범적 담론, 메타윤리적 탐구	■ 사례연구, 현장연구, 스토리텔링, 모범사례	■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 실험연구	■ 민속지학,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참여적 정책분석 사례연구, Q 방법론, 질적 비교분석	■ 문학분석, 역사적 에세이, 변증적 분석, 현장연구, 담론분석, 사례연구

참고 자료

- 박선형(2000). 패러다임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 27(2), 1-19.
- 박선형(2004). 인지적 자연주의: 철학적 배경과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학연구, 42(2), 31-55.
- 박선형(2006). 선진국의 교육행정 지식기반: 논의 동향과 시사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4(2), 1-29.
- 박선형(2010).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8(2), 27-54.
- 박선형(2012). 교육행정철학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1), 53-77.

발제 2. 교육행정학에서 질적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주의적 vs. 실용주의적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해석주의)적 관점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탐구 패러다임(예컨대 비판적 실재론,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야 한다)”

변기용(고려대학교)

구분	구성(해석)주의적 질적연구	실용주의적 질적연구
연구 목적	• 해석과 이해 (understanding) • 이를 통한 개인적·사회적 의미의 발견과 사회적 이슈화	• 설명(explanation): 현상(발생)의 핵심 요인과 그들 간의 구조적 관계의 발견 • 이를 통한 구체적 문제의 해결
자료 수집	• 면담, 참여관찰 등 정성적 자료	• 면담, 참여관찰 등 정성적 자료가 주가 되지만 정량적 자료도 수집하여 활용
자료의 분석과 해석 (다중적 실재)	• 연구자와 내부자(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생성 •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개별 연구참여자(내부자)의 관점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입장 견지(다중적 실재를 가정)	• 개별 연구참여자 각각의 관점보다는 외부연구자의 통찰력, 즉 설정한 연구목적에 따른 자료 분석과 해석이 훨씬 강조됨(다중적 실재보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잠정적 실재를 가정)
연구결과 기술 방식	•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하고 두터운 기술과 묘사가 핵심 • 내부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결과 기술에 핵심적 요소	• 핵심적 특징(발견된 주제)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간명한 기술을 강조 •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발견사항의 생생한 전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연구 결과 기술에 핵심적인 것은 아님
실천에의 함의	• 일반적/이상적 제언	• 맥락을 감안한 실천가능한 구체적 제언
예	• 본질적 사례연구 (Stake, 1995) • 내러티브, 생애사, 문화기술지	• 도구적 사례연구(Stake, 1995); 설명적 사례연구(Yin, 2014) • 근거이론적 방법(기노시타, 2013/2017; Strauss & Corbin, 1990) • 실용적 실행연구(pragmatic action research)(Greenwood & Levin, 2007)

전통적인 방법론의 응용을 통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조화를 모색하는 혼합 연구 방식은 아직까지 일정 부분 논란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미 교육행정학계에서도 그 필요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현석 외, 2015). 하지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의 급격한 변화를 요청하는 질적 연구의 적용 범위 확장(예컨대 ‘실증적 사례연구’)은 아직 질적 연구에 대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영역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유사학문 분야인 행정학계의 상황은 다르다. 김승현(2008)은 “실용성과 현실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례연구는 대부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윤건수, 2005, 김승현 2008에서 재인용)”고 하면서, 학문 후속세대에 대해서도 “양적 연구, 실증적 사례연구, 해석적 사례연구의 세 갈래에서 방법론 강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양적-질적 연구방법 간의 오랜 논쟁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실증적 사례연구 방법 간에도 오랜 논쟁이 있었음을 상기하며, 실증적 사례연구는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양적 연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긍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양적 연구에서는 주어진 모집단 내에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평균적으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즉 인과적 효과)을 추정하려고 하는 반면, 실증적 사례연구는 사례 혹은 사례들의 결과(인과적 과정)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주장한다. 즉 실증적 사례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고 남겨진 인과적 과정(black boxes)을 치밀한 인과과정(smoking gun) “으로 제시하는데 있으며, 양적 연구가 ‘비교적 단순한 인과적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면 실증적 사례연구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우선적 연구 관심임을 언급하면서 해석적 사례연구와 구분되는 실증적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러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는 철학적으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기초한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해석 틀을 가진 연구자들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구되는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들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 기술,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Cresswell, 2013). “연구는 문제 주도적인 것이지 방법론 주도적인 것이 아니다. 즉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채택되는 것이다”란 Flyvbjerg(2011)의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즉, 모든 방법론적 논의는 배타적인 관점에서 상호 배척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서로 대등하게 타당하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전제될 때 이분법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들 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권향원, 2017:12).

한편 이영철(2009)은 이러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론에, 인식론적으로는 구성주의에 뿌리를 둔 ” 비판적 실재론 “에 입각하여 적절히 수행된 (실증적) 사례연구는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한 실증적 사례연구는 지나친 해석적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연구대상의 구성적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나 그에서 도출되는 잠정적 가설과 이론을 비교·검토할 근거를 상실해 버린 ‘상대주의’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즉 연구대상에 대한 존재 가설의 설정과정에 대해 구성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연구대상의 실재성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된 인과적 메카니즘이 실질적인 사례연구 결과와 얼마나 조응하는지를 판단해 볼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과학주의와 구성주의적 상대론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향원. (2017).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한국행정학보**, 51(2), 1-31.
- 김승현. (2008). 행정학분야의 실증적 사례연구에 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pp. 353-371). 서울: 한국행정학회.
- 변기용. (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4), 1-40.
- 신현석, 주영효, & 정수현. (2015).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혼합방법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339-367.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이영철. (2009). 보다 나은 사례연구: 논의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 189-213.
- 기노시타 야스히토(2017). 질적연구법 실천: 수정판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모든 것(M-GTA: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황경성 역). 범우(원서출판, 2013).
- Cres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Sage.
- Flyvbjerg, B. (2011). Case Study. In Denzin, N. K. & Lincoln, Y. 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pp. 301-317).
- Greenwood, D., & Levin, M. (2007).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action research: introduction to action research. *Introduction to action research*.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t Grounded Theory(2nd ed.)*. CA: Sage Publications. Inc.
- Yin(2014). *Case study Research: Desing and Methods*, 5th Ed. SAGE Publication.

교육행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 자세

김병찬(경희대)

1. 세상을 보는 본인의 인식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 인식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접근법이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연구의 방향과 과정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조용환, 1995: 15), 세상의 실체와 법칙이 인간의 인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기존의 실증주의 인식론과는 달리,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절대적 진리나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각자의 인식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인식, 즉 마음(mind)이 중시된다(Cobb, 1994), 이 관점에서는 '지식'은 개인들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는 것이며, 특정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연구방법은 본인의 인식론적 토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인의 인식론적 토대와 맞지 않는 연구방법의 적용은 좋은 연구로 이어지기 어렵다.

2. 자연적, 총체적, 맥락적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자연적, 총체적, 맥락적 실체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조작되거나 실험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을 탐구하고자 하며, 연구 장면, 혹은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총체적인 상황을 연구하려 한다. 질적 연구 관점에서는, 실제적, 자연적 상태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도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어떤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되며, 자연적인 상황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3.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이다.

질적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행동이나 말 등의 문화적 산물들이 형성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현장 접근의 용이성, 연구대상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Denzin & Lincoln, 1994),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들이 동원된다. 아울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핵심적인 연구 도구가 된다. 복잡한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인공 및 측정 도구보다 인간이 더 적합한 도구라고 여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능력이나 역량은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4. 질적 연구는 현상의 '과정'에 주목을 한다.

질적 연구는 활동이나 사건(events)의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법이다. 대체적으로 양적 연구가 인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에 주목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해석과 지각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Stainback & Stainback, 1988), 인간들의 활동과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의 과정에 주목한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들이 행동이나 사건을 형성하고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지각하는 과정,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활동이나 사건의 과정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구 현장에서 보내게 된다(Spradley, 1980).

5. 질적 연구는 나선형적 귀납적 접근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 연구자가 연구에 앞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가설-연역적 접근법과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설이 미리 설정되지 않으며, 연구자가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대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이나 정리를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질적 연구가 가설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질적 연구에서도 잠정적 가설은 설정된다. 다만 한 번 설정된 가설은 연구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는 연역적 접근법과는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도중에 지속적으로 잠정적 가설들이 형성, 기각, 수정, 재해석된다(Wolcott, 1994: 30).

따라서 질적 연구는 가설을 입증하거나 부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가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론이나 가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론이나 가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론이나 가설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Glaser & Strauss, 1967)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질적 연구는 교육행정 연구방법론으로서 분명히 의의가 있다.

교육행정학은 종합 과학적 성격을 지닌 응용학문이다(김종철, 1985). 교육행정 현상은 인간, 혹은 조직의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혹은 복합적 성향을 지닌 활동, 혹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행정이 가지는 성격 자체가 인간 활동의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종합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현상을 탐구하는 교육행정학 역시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행정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종합적인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교육행정을 어느 한 측면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종합적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측면에서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교육 현상을 보고자 하는 질적 접근은 교육행정의 종합적 성격을 좀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발제 3.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접근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나의 학문 여정

이성희(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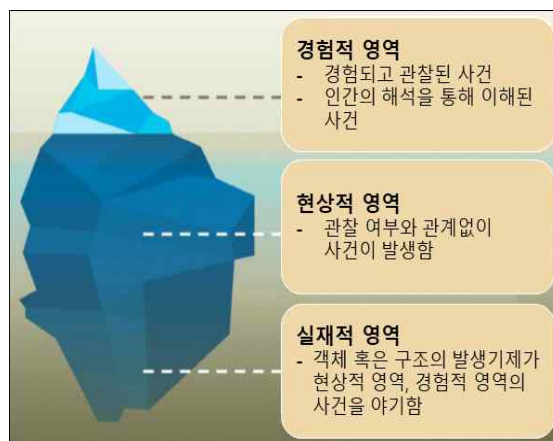
amy44cam@gmail.com

- 1)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박사과정 경험
- 2)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연구 경험
- 3)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탐색의 여정(참고자료)

1)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박사과정 경험: ‘존재론, 인식론은 필요없고요?!’

난 교육학 공부를 한국에서 해 본 적이 없다. 영국에서 석사, 박사를 교육학으로 전공하였다. 영국의 박사과정은 3년이며, 1년 당 총 3학기로 구성된다. 첫 일 년 박사과정에서는 1학기, 2학기에 연구방법론과 연구방법에 대해 집체 수업과 평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수퍼바이저와 논문 주제에 대한 일대일 튜터링이 진행된다. 3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퍼바이저와의 일대일 튜터링으로 연구프로포절을 작성한다.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존재론, 인식론에 대한 교수님들의 장황한 설명과 토론이었다. 무엇이 교육 현실, 실재(reality)인가?(존재론), 그 교육 현실을 어떻게 연구자가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knowledge)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인식론)

거기에 더하여 교수님들은 책과 수업을 통해서 강력한 지식의 생산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론적 기여를 무척이나 중시한 기억이 난다. 지금도 생각나는 말들은, 박사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너만의 독창적 이론을 개발하는 것까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설명력(explanatory power)이 강한 이론적 기여를 하여라. 특히 교육적 경험(경험적 영역)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그러한 교육현상이 발생했는지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link)를 ‘설명’ 해 낼 수 있는 지식(현상적, 실재적 영역)을 생산하여라.



[그림 1] 비판적 실재론의 (심층)존재론에 대한 ‘빙산’ 비유(Fletcher, 2017: 183, 이성희 외, 2021a: iii에서 재인용)

그 때는 들어도 몰랐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비판적 실재론이 스며든 영국의 학풍을 드러내는 말들이었다. 내가 공부하던 2010년도 언저리에 영국에서는, 기존의 지식은 힘이 있는 자들의 담론, 헤게모니일뿐이라며 지식의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지나갔다. 대신에, 지식과 독립된 실재(현실)란 존재론과, 이에 근거해 보다 강력한 지식의 생산 가능성을 주장한 비판적 실재론이 이미 영국의 학풍에 어느 정도 주류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사 논문을 마치면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의 structuration theory를 쓴 내게, 캠브리지 대학 외부의 심사위원이 비판적 실재론자인 Margaret Archer의 realist social theory(Morphogenetic Approach)를 더 공부해 보길 권유한 것도 다 그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다.

2007년 당시, 박사 과정생 중 어떤 연구방법을 택할 것이냐고 물으면, 양적 연구가 35-40%, 질적 연구가 60-65% 정도를 차지하였다. 내 수퍼바이저는 주로 통계를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했지만, 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영국 정책 보고서에서도 질적 사례 연구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연구들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다중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수의 사례이지만, 현상 기저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정책 적용에 있어 일반화가 가능한 지식들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박사과정 1년차에 20,000자 짜리의 연구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심의를 통과하여야지만, 잠정적 박사과정생(provisional PhD student)에서 정식 박사과정생(Phd student)의 자격을 부여한다. 연구 프로포절에는 반드시 주요 연구 질문, 이론,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가 채택한 ‘인식론’, 연구방법론, 연구방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했다.

난 한국의 성인여대생(입학 당시 25세 이상)의 대학생활경험을 연구하고 싶었다. 연구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나의 인식론은 무엇이지? 내 연구주제를 3년 안에 끝내기 위한 연구 설계, 연구방법은 어떻게 구안하지?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이론은? 어디까지 선행연구가 분석되어 있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관련 주제에 대해 닥치는 대로 읽었다. 특히 연구 설계에 있어서, 사례연구 방법, 근거이론 연구방법, 현상학, 통계분석, 연구 윤리, 면담 방법, 여러 연구 ‘방법(method)’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 때까지도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은 연구 프로포절을 제출하기 위한 ‘부속품’ 정도에 불과하였다. 난 심사를 통과한 여러 박사논문 프로포절을 참고삼아, 내 박사논문의 인식론은 ‘구성주의(constructionism)’라고 기술하였다. 최종적인 박사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1) 한국의 4년제 대학의 성인여성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대학생활경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하는가?
- 2) 성인여성대학생들의 대학생활경험 구성과 캠퍼스 밖의 삶(가족, 공동체, 직장 등)의 관계는 무엇인가?
- 3) 성인여성대학생들의 대학생활경험은 어떻게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가?

지금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비판적 실재론의 요소가 조합된 연구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한 주관적 경험을 ‘이해’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사회구조(중시적인 캠퍼스 밖의 삶의 맥락, 거시적 한국사회의 맥락)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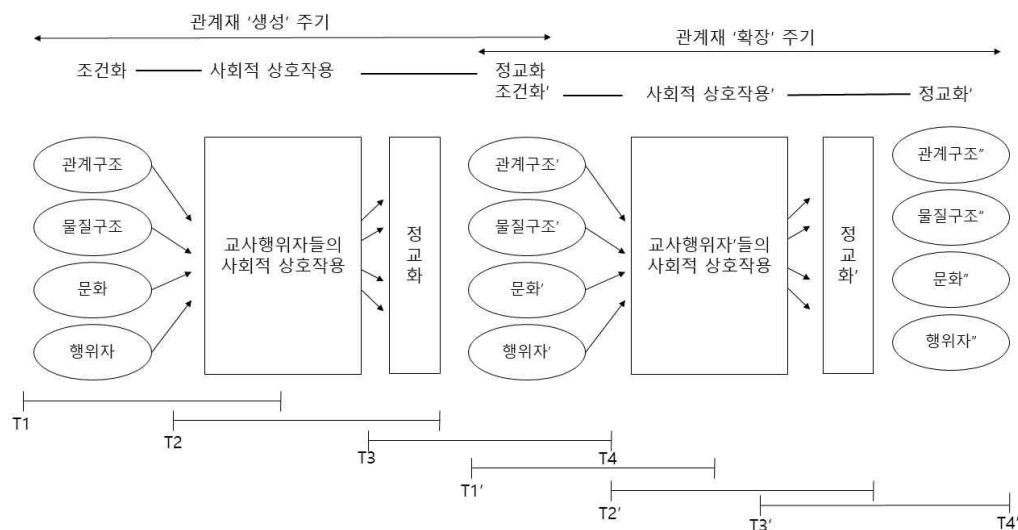
어쨌든, 난, 존재론, 인식론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2)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연구 경험: ‘아! 이래서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이 중요한 거구나. 난 비판적 실재론자였구나.’

2012년에 한국에 돌아와보니, 한국 교육학계는 영국 교육학계와 매우 다른 분위기였다. 교육행정학 논문들은 실증주의 연구가 주류를 차지했고, 통계방법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를 한다는 소리, 질적 연구는 발품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소리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하기 힘든 말들이었다. 약 10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질적 연구방법만으로 정책 연구를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국책연구기관의 대규모 연구들은 박사논문과 달리, 다른 연구자와의 협업을 요구한다. 난 여러 협업을 통해서 내가 양적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 심지어 질적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연구의 관심사, 연구 질문이 달랐다.

나는 교사의 변화(이성희, 2018, 2021b), 학교의 변화, 교육경험의 변화 등을 연구할 때, “왜” 이러한 경험 혹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저의 구조적, 문화적, 행위자적, 관계적 요소들(공시적 요소)들을 가능하다면 시간의 흐름(통시적 요소)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었다(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은...).



[그림 2] 관계적 교사행위자성의 형태발생론적 주기 개념모형(이성희 외, 2021a: xiii)

하지만, 2010년도 중반까지도 내 연구 질문과 연구 설계를 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이성희 외(2016). 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내 보고서의 연구의 목차(정확히 말하면, 연구 설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몇몇 심의자에게 들었다. 내가 잘못된 것인가?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뭐가 이렇게 “그들”과 다르단 말인가?

그 때 박사학위 심사 때 들었던 Margaret Archer가 생각났다. 난 비판적 실재론이란 난해한 사회과학철학을 비교적 쉽게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변환한 Margaret Archer를 공부하기로 했다. Archer를 공부하면서, 난 박사공부가 끝난 이후에야 왜 연구자의 세계관(존재론, 인식론)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곧 연구자의 연구 관심, 연구 질문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난 비판적 실재론자였구나!

관찰가능한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측정하는 경험주의(실증주의)와 달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비판적 실재론의 실재론적 존재론은 연구자인 내게 매력적이었다. 연구참여자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저의 원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탐구하는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매우 흥미진진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한국 대학에서 연구방법론 강의 수업을 맡으면서, 난 한국의 대학원 수업에서 존재론, 인식론,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 여러 연구방법의 테크닉들만을 배우고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구조였다. 그러던 와중에, 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육행정방법론 연구위원회를 만나게 되었다. 연구방법론은 연구자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할 도구이자 무기이다. 앞으로 후속 학문 세대의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논의와 대학원 강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3)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탐색의 여정(참고자료)

이성희,정바울(2015).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찰’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80-210.

이성희 외(2016). 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성희(2017).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 개념모델이 교사학습공동체 논의에 주는 도전과 함의. Andragogy Today, 20(2), 1-27.

이성희(2018).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장 리더십의 발현 과정: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의 적용. 한국교원교육연구, 35(1), 233-260.

이성희(2020). 국가교육정책 분야의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 개념과 쟁점. 교육정치학연구, 27(1), 1-29.

이성희 외(2021a). 관계재(relational goods)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모형 탐색: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성희(2021b). 생태학적 ‘교사 행위주체성’의 한계와 대안: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1(1), 129-154.

이성희(2021c). 사회적 실재론(social realism)의 지식관이 역량기반 교육과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 48(1), 137-166.

이성희, 조선미(2021). 초등돌봄교실은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참여하는가?: 실재론적 정책평가(realist policy evaluation). 교육행정학연구, 39(1), 333-365.

Lee, S. H. (2021). Unpacking the black box of a mature student's processes of social engagement: focusing on reflexivity, structure and agency.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https://doi.org/10.1080/0305764X.2021.1927986>.

연구와 실천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 교육행정학에서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의미와 과제

신철균(강원대)

‘연구와 실천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연구자는 실행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연구자는 제 3자의 관점에서 늘 외부자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연구자로서 위와 같은 질문을 갖게 될 때가 많다. 발표자 역시 교사(중고등학교)와 정책연구자(한국교육개발원)로서 직업적 경험을 하며 교사와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연구에 임할 때는 교사와 학생은 연구대상으로서만 그치는 경험을 많이 했다²⁾.

이러한 고민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바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바로 연구와 실천의 연계와 결합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이다. 실행연구는 ‘참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해 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 과정의 연구’로 정의된다(Reason & Bradbury, 2001).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특성은 첫째, 참여적 연구 성격을 지닌다. 전문연구자와 현장 주체가 결합하거나 현장 주체자가 곧 연구자가 될 수 있기에 참여적 연구 성격을 지닌다. 둘째 실천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 과정이 곧 실행이 된다. 이는 연구와 실천을 엄격히 구분하는 전통적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순환적 과정을 강조한다. 결과 도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며, 계획-실행-성찰의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을 중요시한다.

위와 같은 실행연구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실행연구의 의미로 이어진다. 실행연구는 당연히 현장 연계성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연구참여자를 주변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식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엄격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지식창출을 중시하는 기존 인식론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Hall, 1992). 실행연구는 더 나아가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과정으로 비판적, 반성적 현실 인식을 통해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순환적 움직임이다(김경희 외, 2009). 즉 침묵을 요구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때로는 교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 삶을 이야기 하는 의미가 있다(Bernard, 2000).

특히 청소년참여실행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YPAR)는 20세기 중반 미국 및 남미의 참여실행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 참여연구(Youth-led Participatory Research), 청소년 참여 평가(Youth Participatory Evaluatio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남채봉, 2013).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에 의해, 청소년을 위해(research conducted ‘with, by, and for’) 수행되는 연구이다(Torre & Fine, 2006). 청소년참여실행연구(혹은 학생참여실행연구)는 청소년을 수동적인 연구 대상의 시각에 탈피하여 청소년을 사회 변화 도모의 주체로 인정하며, 청소년들이 연구자(교사)와 함께(혹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과 관련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참여실행연구가 주로 시민교육, 사회과교육, 청소년개발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연구(혹은 청소년실행연구)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는 교육행정학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선, 실행연구를 통해 교육행정실천(학교)현장과 연구를 연계시킬 수 있

2) 이러한 고민 속에 수행하게 된 연구가 바로 ‘신철균 외(2018). 고교 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학생들의 시선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9개 고교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시선으로 우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과 과제를 담아보고자 하였다.

다. 교육행정학은 이론과 지식의 현장 적응성이 낮아 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며(신현석, 2017),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적 배타성으로 연구자와 현장 실천가의 괴리(변기용, 2018)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즉 실행연구를 통해 현실과 유리된 교육행정학계의 모습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 둘째 교육현장의 주체화와 일상에 대한 성찰에 도움이 된다. 실증주의 기반 연구는 교사(학생)가 외부 연구자의 자료 제공자 역할과 주변 대상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다(성열관, 2006). 반면 실행연구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현장 문제를 연구로 풀어내고 적용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주체가 되며, 교육현장 일상을 성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학계에서의 실행연구 실태는 미미하다. 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하는 교육행정학연구에서 “실행연구”란 제목을 가진 연구물은 단 한편도 없었다³⁾. “실행연구” 주제어(키워드)는 단 1편만 있었다⁴⁾. 이어서 ‘교육행정학연구’의 질적연구동향 분석⁵⁾에서도 “실행연구”의 분류는 없었을 정도로, 그 만큼 교육행정학계에서 실행연구의 의미는 존재감이 없었다.

앞으로 실행연구(학생·청소년참여실행연구) 관련한 교육행정학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연구(특히 ‘학생 참여’)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교육행정연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참여실행연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찰이 필요하다. 학부와 대학원생(교원)의 실행연구를 권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실행연구 주체가 교실 수업을 넘어서서 학교행정과 교육정책 관련한 주제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엘리트 학생 중심의 요식적·명목적 학생참여연구(Tokenistic Participation)를 경계하고 연구자(교사)의 진정성(Teacher Authenticity)에 기반한 학생참여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Quinn & Owen, 2016). 넷째,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이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여시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을 교육 주체로 존중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앞으로 교육행정학계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실행연구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교육 변화의 단초가 됨으로써 교육행정학계에서도 실행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받기를 기대해본다.

3) ‘교육행정학연구’에 “실행”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1,236건 문헌 중 63건이 검색됨. 검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실행과 관련된 문헌들이었음.(예. 박상완(2019).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의 실행: 관련 요인과 과제.)

4) “실행연구”를 주제로 택한 한 편의 논문은 변기용(2018) 연구이다. ‘변기용(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5) 신현석, 주영효, 정수현(2014: 70).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표 6> 연구 유형별 분석 결과

구 분	1990-1999	2000-2009	2010-2014	계
근거이론 연구	0(0%)	5(4.8%)	3(4.1%)	8(4.2%)
내러티브 연구	0(0%)	2(1.9%)	3(4.1%)	5(2.6%)
사례 연구	4(33.3%)	54(51.4%)	35(47.9%)	93(48.9%)
문화기술지 연구	5(41.7%)	18(17.1%)	9(12.3%)	32(16.8%)
현상학적 연구	1(8.3%)	3(2.9%)	6(8.2%)	10(5.3%)
생애사 연구	0(0%)	2(1.9%)	0(0%)	2(1.1%)
기타 질적 연구	2(16.7%)	21(20.0%)	17(23.3%)	40(21.1%)
계	12(100%)	105(100%)	73(100%)	1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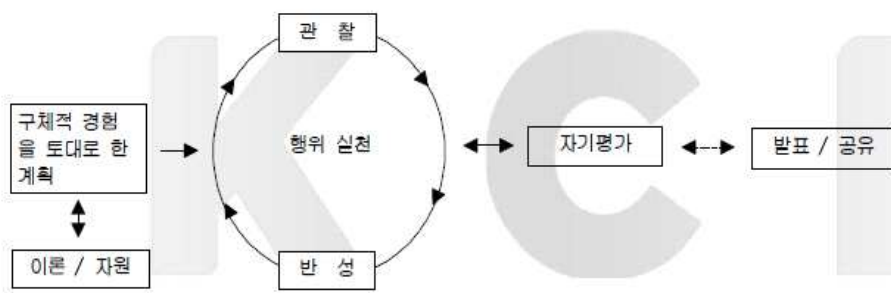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지영, 소경희(2011). 국내 교육관련 실행연구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197-224.
- 김경희 외(2009).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기용(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4), 1-40.
- 남채봉(2013). “우리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 변기용, 백상현(2020). 학부생비교과프로그램 개발 실행연구: A대학 교육정책연구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8(5), 145-165.
- 성열관(2006). “교육과정 실행연구의 성장과 주요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24(2): 87-109.
- 신현석, 주영효, 정수현(2014: 70).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질적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53-81.
- 신철균, 김지혜, 유경훈, 이승호, 송경오, 최영준, 김덕년(2018). 고교 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학생들의 시선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숙, 김영미, 김영천, 이혁규, 조덕주(2004). 실행연구를 통한 연구와 교육실천의 연계성 강화. 열린교육연구, 12(1), 363-402.
- Bernard, W. T. (2000). Participatory research as metho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search Training for Social Scientists. SAGE.
- Hall, B. (1992). From Margins to center? The development and purpose of participatory research. American Sociologist, Winter.
- Quinn S. & Owen S. (2016). Digging deeper: Understanding the power of ‘student voice’ .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60(1), 60-72.
- Reason & Bradbury(2001). Introduction: Inquiry and participation in search of a world worthy of human aspiration. Handbook of Action Research. SAGE.
- Torre, M., & Fine, M. (2006). Researching and Resisting: Democracy policy research by and for youth. In S. Ginwright, P. Noguera & J. Cammarota(Eds.). Beyond Resistance!: Youth Activism and Community Change (pp.269-285).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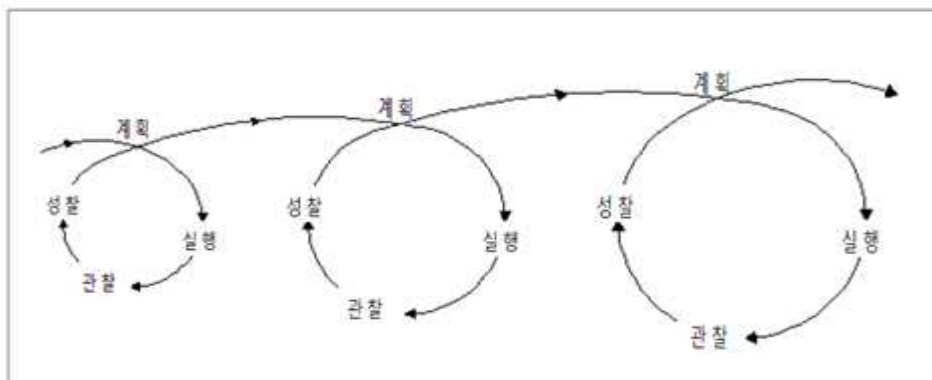
<기타 실행연구 저서>

- 이용숙·김영천·이혁규·김영미·조덕주·조재식(2005). 『실행연구방법』. 학지사.
- Greenwood & Levin(2007). Introduction to action research: Social research for social change. 변기용 역(2020). 사회개혁과 교육실천을 위한 실행연구입문. 학지사.

□ [참조 1] 실행연구 모형



[그림 1] Kemmis와 McTaggart(1988)의 모형을 조재식이 수정한 실행연구 모형
출처: 이용숙외(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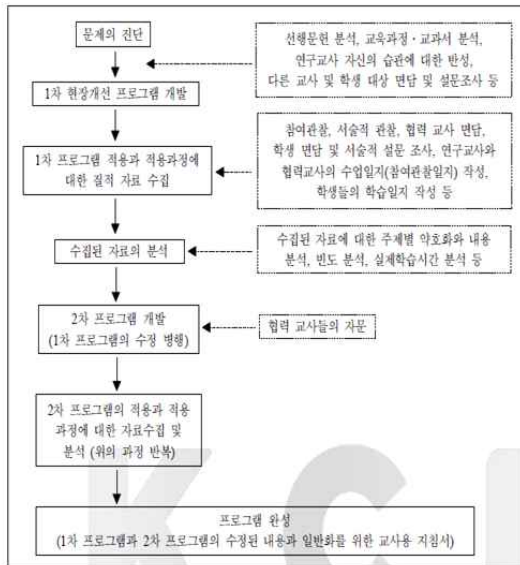
[그림 1] 실행연구의 나선형적 순환 구조

출처: 강지영, 소경희(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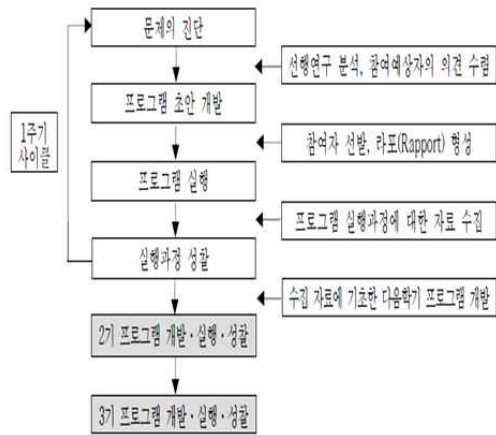
□ [참조 2] 실행연구 설계

출처: 이용숙외(2004)

출처: 변기용, 백상현(2020)



[그림 2] 현장 개선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실험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이용숙 개발)



[그림 1]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 설계